# 인 사 말

양 지 영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수석부회장,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2017년 한해는 그 어느 시간의 순간보다도 격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국가의 기조가 갑자기 바뀌게 되어 여가 야로, 야가 여로 입장이 바뀌어 지면서 새로운 정부 주도 하에 국가조직에 변화가 있게 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방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어 진다. 농축수산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 및 소비자 안전에 있어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식품산업은 그 규모를 키워 대규모화 글로벌화 되는 과정 중에 기술적 변화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정부규제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고쳐 나아가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부의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대기업위주 탈피, 지방분권, 안전한 국민생활 등등. . .

식품위생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본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식품을 통한 안전성 확보라는 큰 명제는 변함이 없으나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효율성 제고와 이에 대한 법률의 재정비를 어떤 방안에서 접근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식품안전관련 기술의 개발 및 사회적응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셋째, 세계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수입식품과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규제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식품안전의 정책이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는 맞는 방향이나 이에 따른 식품안전행정의 변화가 발맞추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류 인프루엔자 등 사람을 포함한 동물질병관리체계의 확보가 선진화되고 현실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일방적 규제와 처벌위주의 행정 편의적 사고방식에서 시장자율적이고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을 위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식품위생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플랫폼 구축 그리고 4차산업을 활용한 식품위생관련기술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2017년 6월